

“스포츠메카 도전하는 장흥군, 날개 달았다”

장흥군서 ‘스포츠인 교육 백년대계’ 비전 선포 대한민국체육인재개발원 건립 기념식 제막식

20일 장흥군에서 ‘스포츠인 교육 백년대계 비전 선포식’이 열렸다.

대한체육회가 주최하고 장흥군이 후원한 이날 행사는 대한민국체육인재개발원 건립을 알리고 미래 스포츠 교육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개최됐다.

비전 선포식에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정중순 장흥군수를 비롯한 80여명이 참석했다.

대한체육회는 이날 ‘대한민국체육인재개발원’이란 정식 명칭과 ‘체육인 교육의 요람,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란 슬로건을 발표했다.

비전 선포식에서는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핵심 과제, 추진 전략과 비전

로드맵 제시됐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참석 인원을 줄여 온라인 화상연결을 통한 ‘온택트(On-tact)’ 비전 선포와 세레모니도 마련됐다.

스포츠 교육 목표와 비전을 공유할 선수, 지도자, 심판, 동호인 등 전국의 스포츠인이 온라인 화상으로 비전 선포식을 지켜봤다.

대한민국체육인재개발원 홍보를 위해서 스포츠 가치를 선도하는 인재를 효율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한 미래형 교육장 모습을 영상으로 공개했다.

장흥군은 올해 2월에는 대한민국체육인재개발원 건립 최종 후보지로 낙

점됐다.

대한민국체육인재개발원은 전국 체육인들의 교육연수와 동·하계 전지훈련의 중심지로 사용되는 시설이다.

장흥군은 2차전까지 이어진 후보지 선정 평가에서 치열한 경쟁 끝에 최종 선정의 쾌거를 이뤘다.

장흥군은 초반부터 적극적인 유치 의지를 내비치며, 장점으로 부각된 넓고 쾌적한 부지, 사계절 온화한 기후, 접근성 등을 강조했다.

정중순 군수는 대한체육회 실사단을 대상으로 직접 현장 브리핑에 실시하는 등 유치전의 전면에 나섰다.

종합적인 검토 끝에 장흥군은 대한민국체육인재개발원 입지에 최적을 여건 갖춘 것으로 평가받았다.

대한민국체육인재개발원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국비 약 370억원을 들여 부지면적 16만㎡, 건축 규모 2만5천㎡ 규모의 시설이 들어선다.



교육시설, 숙박시설(200명 수용), 편의시설, 다목적체육관, 체육단련실, 운동장 등의 실내·외 체육시설이 갖춰질 예정이다.

정중순 장흥군수는 “대한민국체육인재개발원이 스포츠의 가치와 교육

비전을 모두 담아내는 미래형 교육장이 되길 기대한다”며, “장흥군도 이 같은 교육 비전을 공유하며 대한민국 스포츠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강진만 갈대생태공원, 국화 전시 한창 방문객 위한 국화 화분 및 조형물 전시로 볼거리 제공



강진만 생태공원에 국화 전시가 한창이다. 예년이었다면 갈대축제가 진행될 시기이지만 군은 코로나19 방역

을 위해 축제를 취소하고 대신 방문객을 위한 국화 및 조형물 전시만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다. 강진군농업기술센터는 강진만

강진=김영일기자

갈대생태공원 입구부터 전망대 앞까지 약 2,500㎡ 면적의 공간에 국화 화분 12,000개와 조형물 18점을 활용해 전시공간을 마련했다.

강진만을 상징하는 고니 조형물을 중심으로 청자 조형물, 다산초당 및 월남사지 삼층석탑 조형물을 국화로 꾸며 방문객에게 이색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가족단위 방문객을 위해 하늘계단 등 포토존을 배치했다.

군 관계자는 “강진만 생태공원의 국화 전시는 10월 22일부터 11월 15일까지 25일간 진행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문객들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전시된 꽃들을 관망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진도군,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가져

내년도 신규·특수사업 119건 등 총 600여건 업무계획 수립

진도군은 21일 내년 주요업무계획과 신규사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체험형 관광플랫폼 구축, 거동불편 어르신 주택 편의시설 설치, 언택트 문화예술콘텐츠 개발, 보건소 재활치료센터 운영, 카

드형 진도아리랑 상품권 발행 등 119건의 창의적인 신규사업에 대해 사업효과와 세부추진 방안 등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이동진 군수는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적극적이고 선제적으

로 대응해준 직원을 먼저 격려하면서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의 재원확보 방안을 비롯 보고회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 추가적으로 농·수산업 활성화와 지역개발을 위한 신규사업을 발굴해 줄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건의된 주민생활에 꼭 필요한 사업도 함께 발굴해 줄 것도 당부했다.

진도=조상용기자



완도자연그대로미(米)의 맛있는 변신

5회 걸쳐 우리 쌀 활용 다양한 디저트 만들기 교육 실시

완도군은 지난 8일부터 22일까지 총 5회에 걸쳐 농업기술센터에서 완도 쌀인 완도자연그대로미(米)를 활용한 다양한 디저트 만들기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완도자연그대로미(米)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쌀 소비를 확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되었으며, 마스크 쓰기와 손 소독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되었다.

남도의례음식장 이수자인 정금례 강사를 초빙하여 약밥, 오곡카스테라, 바나나떡, 바람떡, 쌀 전병 등 우리 쌀을 활용한 디저트 만들기 교육이 이뤄졌다.

교육 참가자는 “쌀로 만든 디저트는 맛도 좋지만 영양소가 풍부해서 건강에도 좋고, 만드는 방법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서 앞으로 가족들을 위한 디저트는 직접 만들 생각이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완도군 농업기술센터 이복선 소장은 “완도자연그대로미(米)와 더불어 다양한 농산물을 활용한 교육을 실시하여 소비 촉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여성 농업인 및 농촌 여성의 역량 강화 및 농촌 생활 활력 제고를 위해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교육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완도자연그대로미(米)는 미세 먼지 없는 깨끗한 공기와 맑은 물, 오염되지 않은 토양, 미네랄이 풍부한 해풍 등 자연환경을 그대로 살린 ‘자연그대로 농법’을 실천하여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와 미국, 러시아 등으로 수출되며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완도=김광수기자

해남군, 고구마 산업 특구 ‘우수특구’ 지정

해남군 ‘땅끝해남 웰빙고구마 산업특구’가 정부의 2020년 우수특구로 지정됐다.

우수특구 지정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국 190개 특구의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로 해남 고구마 산업특구를 비롯한 12개의 특구가 선정됐다.

우수특구지정으로 해남군은 중소벤처기업부 기관 표창과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원 받는다.

해남군은 지난 2010년 땅끝해남 웰빙고구마 산업특구로 지정됐으며, 해남 고구마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해 오면서 고구마 생산 및 자원화, 고구마 가공 및 산업화, 고구마 연구 및 홍보체험 등 3개 특화사업과 8개 세부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해남군은 고구마 산업특구 운영을 통해 전체 생산면적에 무균 조직배양묘를 보급해 고품질 고구마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군 직영 온라인 쇼핑몰 해남미소의 운영과 고구마 가

중소기업부 기관표창

포상금 5천만원 받아

공업체 지원을 통한 신산업 확대 등 해남을 대표하는 농산물인 고구마 산업 육성에 전력해 왔다.

또한 최근에는 아이스군고구마 등 고구마 신제품 개발과 가공산업을 역점 추진해 고구마 소비 저변을 확대해 고구마 관련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왔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해남고구마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재배면적과 생산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리적표시 제42호로 등록되어 지역 특산물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며, “우수특구 지정으로 다시한번 해남고구마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며, 앞으로도 지역의 특색있는 자원을 집중 육성해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에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책과 함께 즐기로운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세요.





